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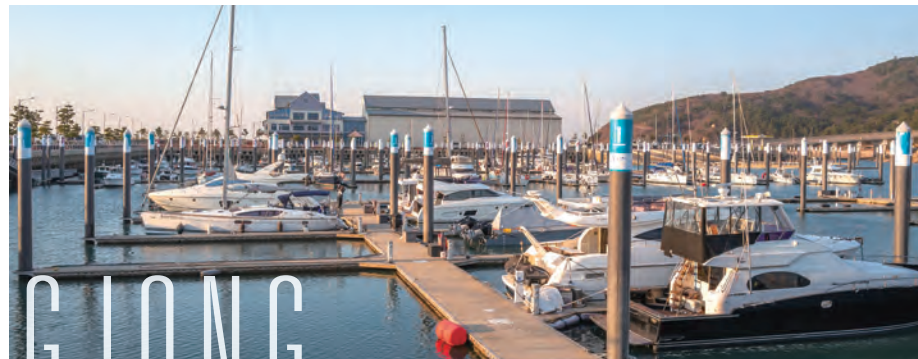
SONGDO



CHEONG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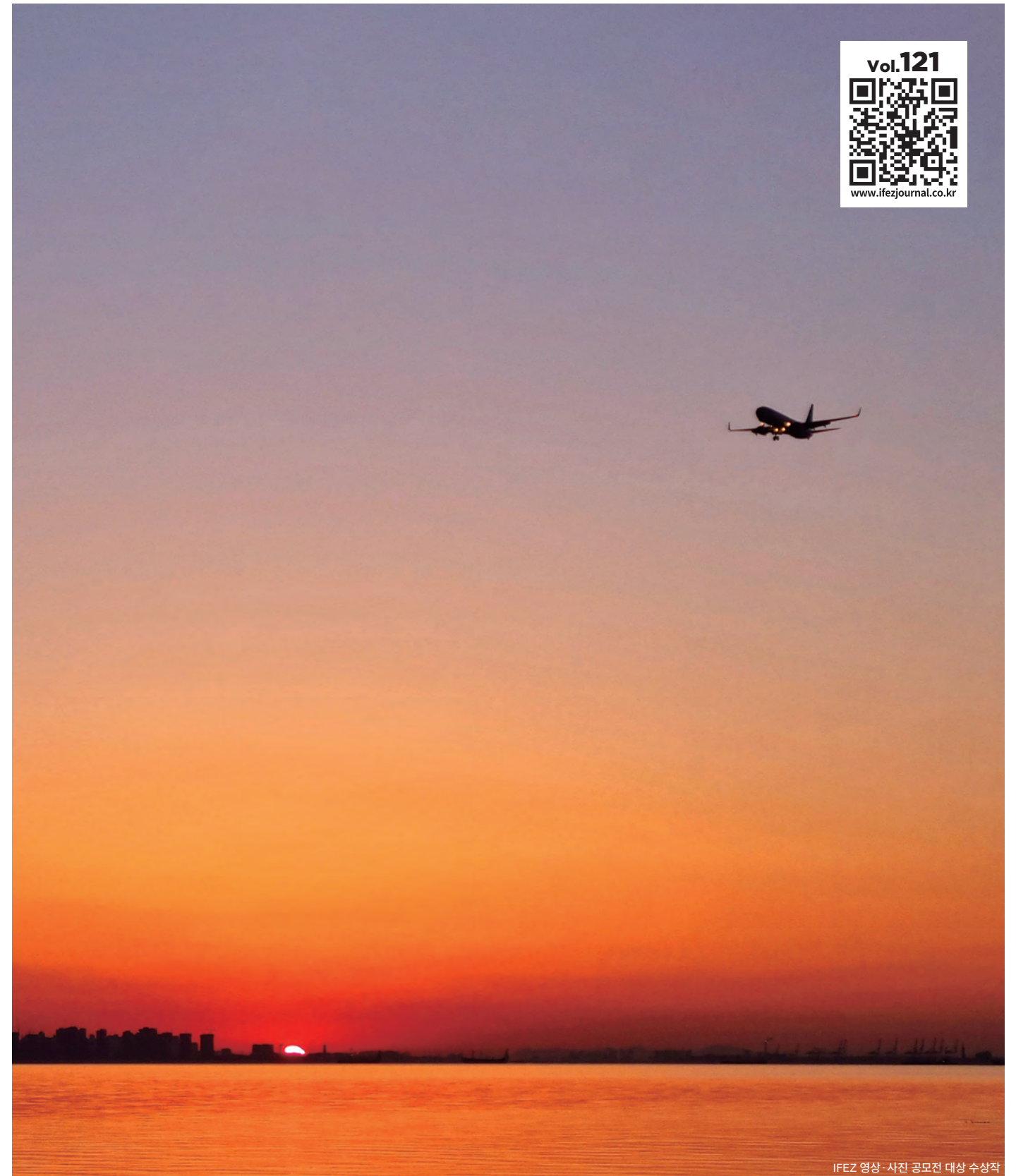


YEONGJONG



아무것도 없던 땅,
그 위를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이뤄낸 찬란한 결실.

이제는 세계 최고의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매거진
제121호

발행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발행일
2024년 12월 27일
발행호
통권 제121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54-6280548-000013-07
담당부서
미디어문화과 홍보팀
기획·디자인
웨스트코㈜
IFEZ저널 웹진
ifez.go.kr/journal



GO! 웹진
www.ifezjournal.co.kr
QR코드를 스캔하면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CONTENTS

BUSINESS	04	VISION	IFEZ, 2040 비전 선포! 밸류업 전략과 혁신성장 전략으로 앞당기는 글로벌 TOP10 도시
	08	TOPIC	투자유치 주요소식
	12	BOARD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IFEZ 활동
	16	SPECIAL INTERVIEW	한국뉴욕주립대학교(Stony Brook University) 아씨리(Arthur H. Lee) 총장
	20	SPECIAL ISSUE 1	2025년 해외 시장 진출 모범 사례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 개발 접근법은 무엇일까요?
PARTNERS	24	SPECIAL ISSUE 2	인천 스타트업, ‘CES 2025 혁신상’ 13개 수상 쾌거!
	26	SPECIAL INFRA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IFEZ
	30	WITH US	인천스타트업파크 소식
LIVING&CULTURE	32	COMMUNITY	-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 외국인 대상 <비자 바로알기> 공개강좌 - 한국어 교실 수강생, 한국민속촌 견학
	34	TRIP	겨울에도 즐기기 좋은 도시 IFEZ : IFEZ 겨울 낭만 여행
	38	CULTURE	아트센터인천 이달의 What’s on?
	40	MICE	송도컨벤시아 ISSUE & CALENDER
	42	EVENT	일상 한 컷 / 랜드마크 퀴즈

IFEZ, 2040 비전 선포! 밸류업 전략과 혁신성장 전략으로 앞당기는 글로벌 TOP10 도시

2040

‘IFEZ 2040 비전선포식’에서는 바다를 메워 도시를 조성한다는 혁신적인 상상에서 시작해 송도, 영종, 청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도약하는 비약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IFEZ의 지난 21년간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향후 20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IFEZ는 지난 3월 임직원으로 구성된 ‘IFEZ 비전전략 2040 수립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내·외부 환경분석, 전문가들의 자문·협력을 거쳐 새로운 청사진을 완성했으며, 이 날 선포식을 기점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인천경제자유구역
2.0 시대를 향한 4대 비전과
투트랙 전략 선포

▲밸류업 전략과 ▲혁신성장
전략으로 2040 IFEZ의
미래상 제시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미래 20년을 여는 첫 해

10.15
송도 경원재
엠버서더에서
열린 IFEZ
2040
비전포럼 현장



IFEZ 2040 비전 포럼

개청 21주년 기념 행사는 ‘글로벌 톱10 도시를 향한 IFEZ의 도전’을 주제로 ‘IFEZ 2040 비전 포럼’으로 포문을 열었다. 세션 1과 2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IFEZ 비전 2040’과 ‘글로벌 톱 10 도시 발전을 위한 IFEZ의 전략’을 주제로 하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 ‘IFEZ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미래 준비’라는 주제 발표를 한 배기원 갈렘앰컴퍼니 대표는 “IFEZ는 국제공항을 품은 도시라는 입지 우위,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라는 강점, 바이오 클러스터 기반의 비즈니스 혁신 생태계, 글로벌 도시로서의 정주 여건 등 핵심 성공 요인을 갖추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하지만 “투자유치 재점검, 지속 성장을 위한 모멘텀 확보, 고객 관점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투자유치와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려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배 대표는 앞서 경제청에서 수립한 4대 핵심 가치인 소통, 실행력, 글로벌, 전문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만드는 비즈니스 혁신의 중심, IFEZ’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4대 도전 과제와 8대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4대 도전 과제는 ▲성장 모멘텀 확보 ▲투자유치 미션 재점검 ▲지역별 특화 발전 ▲규제 개선이다. 이를 위한 8대 전략 과제는 ①글로벌 투자유치 인프라 확충 ②R&D 투자유치 확대 ③APAC 지역본부 유치 ④첨단 기술 기업인재 확보 ⑤항공, 복합물류 클러스터 구축 ⑥관광·휴양복합 클러스터 구축 ⑦ESG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더 가든 송도) ⑧글로벌 혁신 생태계 주도이다.

인천시 초일류도시기획관을 지낸 한상을 인하대 건축공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어진 토론에는 기윤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청우 인천일보 편집국장, 이경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두 번째 세션은 윤석진 인천연구원 글로벌시티연구단장이 ‘글로벌 도시 IFEZ의 발전 경로와 도약적 혁신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 발표로 인천 경제 발전의 특성을 진단하고, 글로벌 도시로서 발전 경로와 정책 제언을 발표해 현장에서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바통을 이어받은 오준석 숙명여자대학교 경상대학 학장은 ‘Destination Incheon as Investment Facilitation Strategy(투자 유치 전략으로서 데스티네이션 인천)’란 주제 발표로 정책 방향 설정에 전문성을 더했다.

IFEZ 2040
비전포럼에서
개회사를
전하는
윤원석 청장





—
비전포럼
이후 진행된
2040 IFEZ
비전선포식



—
비전선포식에
참석한
윤원석 총장



—
개청
21주년을
기념하고자
열린 비전
선포식



—
지난 21년을
돌아보고,
향후 20년을
위한 미래
비전 제시

—
향후
20년을 향한
시작의
방점을 찍다!



IFEZ 2040 비전 선포식

이어진 IFEZ 2040 비전 선포식은 축하, IFEZ 2040 비전 발표, 비전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IFEZ 2040 비전 발표를 위해 직접 연단에 오른 윤원석 청장은 2040년을 목표로 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갯벌 매립과 도시 발전을 이룩한 인천경제자유구역 1.0 시대를 뛰어넘어 인천경제자유구역 2.0 시대를 향한 4대 비전을 발표했다.

4대 비전은 ①선도자에서 혁신자로 ②관문 경유지에서 목적지·출발지로 ③제조무역 기반에서 기술·문화 산업 경제로 ④글로벌 탑10 도시로이다. IFEZ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밸류업(Value Up)과 ▲혁신성장(Innovation Growth)이라는 두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기존 개발 모델을 넘어 경제자유구역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IFEZ 2040 시대를 열어간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기존 진행 사업의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전략으로는 첫 번째로 기존의 제조 기반 바이오 산업을 연구 중심으로 확장하여 바이오 및 헬스케어 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생산을 확대하여 첨단 의료 산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메가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글로벌 탑10 도시에 걸맞는 수준으로 기존 진행 사업의 밸류업을 꾀한다. 송도 6·8공구 아이넥스는 글로벌 무역센터 및 글로벌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영종 항공복합도시 개발은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세 번째로 세계와 한국을 연결하는 경제 허브로서 한상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한상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글로벌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MICE 산업을 활성화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윤원석 청장은 “파괴적 혁신성장 전략으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경제자유구역의 확대로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강화도 남단은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영종도 제2준설도 투기장은 복합 해양관광 레저도시로 탈바꿈한다. 내항 재개발과 연동해 원도심과의 균형 잡힌 성장으로 전환을 이루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두 번째로 K-콘텐츠를 이끄는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실내외 스튜디오 등 영상 제작 인프라와 관광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콘텐츠 제작, 유통, 소비 전반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관문 도시’를 뛰어넘어 ‘인천이 목적지’가 되는 문화 창조 산업을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세 번째로 창조적 파괴를 위한 전략으로 과감한 규제 혁파, 맞춤형 인센티브를 꼽았다. 행정절차 간소화, 수도권 배제조항 삭제 등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유턴기업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영종, 청라, 송도 권역의 발전과 더불어 강화, 제물포, 남동 권역 등 원도심과의 동반 성장을 통해 선순환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윤원석 청장은 “IFEZ는 2040년까지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 K-컬처를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며, 글로벌 기업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미래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며 밸류업과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한 IFEZ의 도전적인 비전을 강조했다.

TOPIC

of INVESTMENT ATTRACTION

IFEZ, 인천 스마트시티 서밋 이니셔티브 선언

- 몸바사(케냐의 항구 도시), 다카르(세네갈의 수도), 케냐의 콘자 테크노폴리스 등 6개국 10개 도시 다자간 협정 체결
- 스마트시티 모델 확산, 관련 스타트업 지원, 공중보건 향상에 공동 대응 약속



IFEZ(청장 윤원석)는 지난 11월 12일 경원재 아리랑홀에서 '인천 스마트시티 서밋 2024'를 개최하고, 스마트 발전과 글로벌 협력을 위한 '인천 스마트시티 서밋 이니셔티브'를 공식 선언했다. 100여 명의 국내외 도시 대표단, 공공기관·학계·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서밋에 참석한 가운데 이 중 세계 10개 도시가 인천 스마트시티 서밋 이니셔티브에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약속하는 다자간 협정을 맺었다.

인천을 필두로 하여 케냐의 항구 도시인 몸바사, 세네갈의 다카르, 인도의 몸바이와 우타르프라데시, 케냐의 콘자 테크노폴리스, 나이지리아의 베뉴에 주와 잠파라 주, 잠비아의 루사카와 루쿠모시티가 뜻을 같이 했다. 이번 협정에 뜻을 같이한 도시들은 인천의 스마트시티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각 도시의 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스마트시티의 기술과 경험을 나누는데 협력해 갈 예정이다.

이 날, 윤원석 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스마트시티는 더 이상 미래 개념이 아니다. 우리의 현실이다. 이번 서밋을 통해 각 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길을 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천 스마트시티 서밋 이니셔티브’는 ▲스마트시티 모델 제공 ▲스타트업 교류와 협력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대응을 골자로 한다

① IFEZ 스마트시티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파트너 도시와 공유하며, ICT와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 기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공보건 성과를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천에 적용된 기업 기술을 기반으로 다른 도시들이 스마트시티 모델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② 협약도시 간 스타트업들이 스마트시티 내에서 성장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인재 유치와 고용을 지원하며 헬스케어 및 바이오 산업 분야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도시 간 스타트업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고 신생 기업들은 각자의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③ 송도에 있는 K-바이오랩허브 인프라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과 취약 국가의 공중보건 전문가와 연구원들이 바이러스 연구와 백신 개발에 필요한 최신 기술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팬데믹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인천 스마트시티 테크 컨퍼런스, 글로벌 협력의 문 열다

- IFEZ와 MS社 공동 프로젝트 발표, CES 2025 참가 9개 스타트업 쇼케이스
- 글로벌 테크 기업과 전문가, 스타트업 200여명 참석... 글로벌 협력의 장
- '인공 지능(AI) 기반 스마트 시티 혁신 비전'제시

IFEZ(청장 윤원석)는 지난 11월 13일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개최한 '인천 스마트시티 테크 컨퍼런스'에서 스마트도시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고, 글로벌 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간 글로벌 협력의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AI-Driven Smart Cities(인공 지능이 열어가는 스마트 도시)'를 주제로,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의 미래를 모색하고, 글로벌 협력을 통한 기술 및 비즈니스 혁신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① IFEZ-마이크로소프트 업무 협약 체결... 유니콘 기업 육성 협업

이번 행사에서 IFEZ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공동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인천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2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선정될 5개의 유망 스타트업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기술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받게 되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총 10억 원(기업당 최대 2억 원) 상당의 사업지원을 통하여 MS 클라우드 크레딧 지원, 1:1 전문가 자문 및 핵심 파트너와의 네트워크 연계 등으로 구성된 집중 육성 솔루션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IFEZ는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투자 네트워킹 행사, 법률·투자 상담, 홍보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을 도울 계획이다.

② 글로벌 테크 기업 세션: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스마트시티 전략 발표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주열 디지털 스타트업 사업 담당은 'AI-Driven Smart Cities를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기업의 전략'을 발표했다. 이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및 AI 기술을 통해 도시 내 주요 인프라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소개됐다.

③ 스타트업 세션: 스마트시티 혁신을 이끄는 젊은 창업가들의 발표

스타트업 세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들이 참여해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현과 전통 산업의 AI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대표적인 발표로는 오케스트라의 박소아 부사장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축 방안을 소개하며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밖에도 AI를 통해 전통 산업을 혁신한 스타트업으로는 에이오팜(대표 곽호재), 시제(대표 신인준), 넥스트페이먼트(대표 지광철) 등이 참여해 AI 기술을 통해 기존 산업에 변화를 일으킨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공유했다.

④ Pre CES 2025 세션: 글로벌 투자자와 스타트업 연결의 장

'CES 2025 인천/IFEZ관'에 전시 참여하는 기업들을 홍보하는 Pre CES 2025 IR 세션도 준비됐다.

공연용 드론 시스템(파블로항공), 블록체인 기반 식품 이력 추적 서비스(퓨처센스), 도시 에너지 관리 시스템(나인와트), 수질 관리 자동화 시스템(세코), 고양이 건강관리 트래커(펄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 9개 유망 스타트업들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기술력을 선보이고, '인천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에 참가한 도시와 기관 참가자들과의 비즈 매칭(투자유치 상담)도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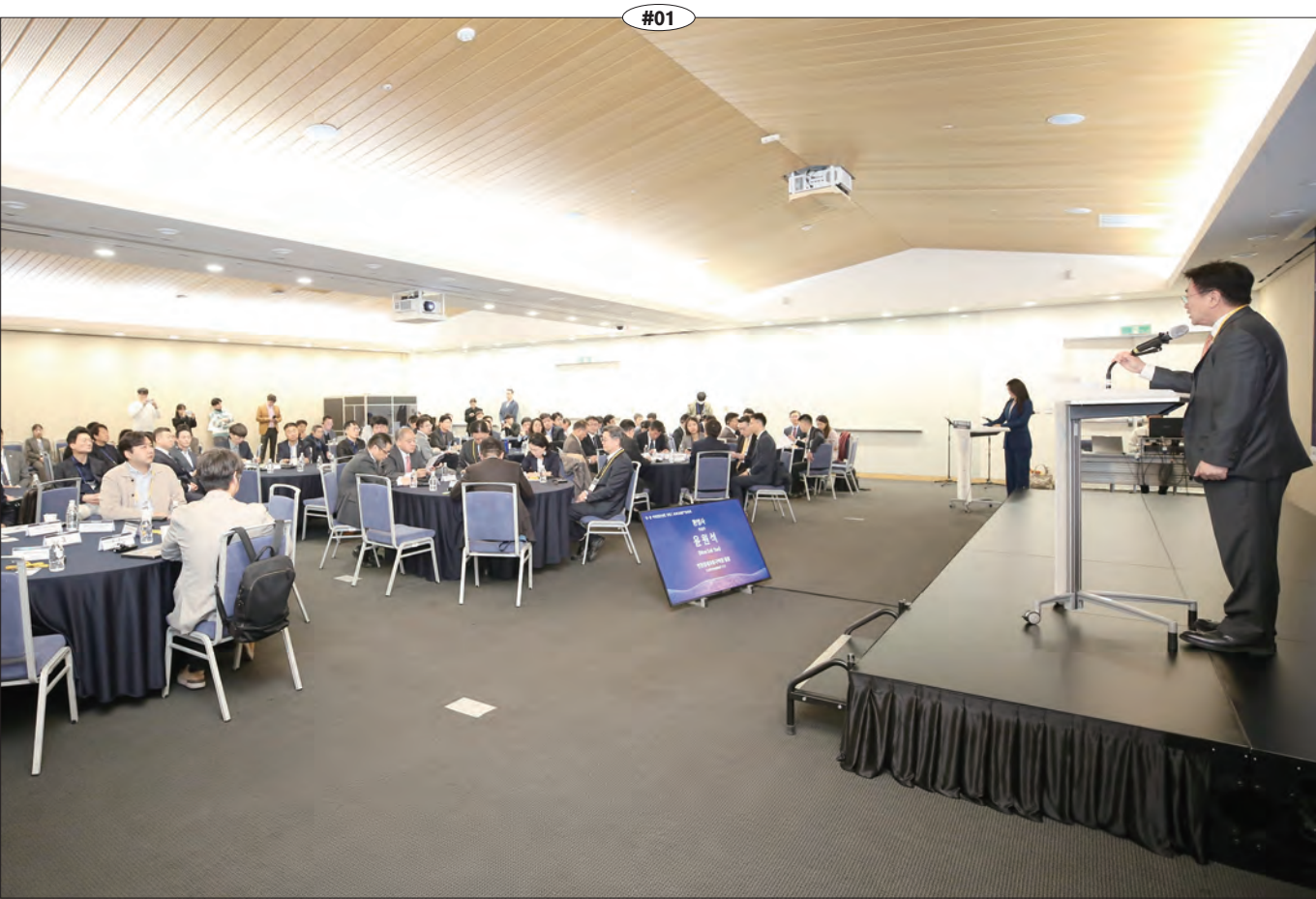
이번 컨퍼런스는 인천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 전문가, 스타트업이 협력하여 AI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의 미래를 그리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IFEZ는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의 미래를 선도하고, 기술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YouTube

IFEZ 유튜브에서 인천 스마트시티 테크 컨퍼런스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IFEZ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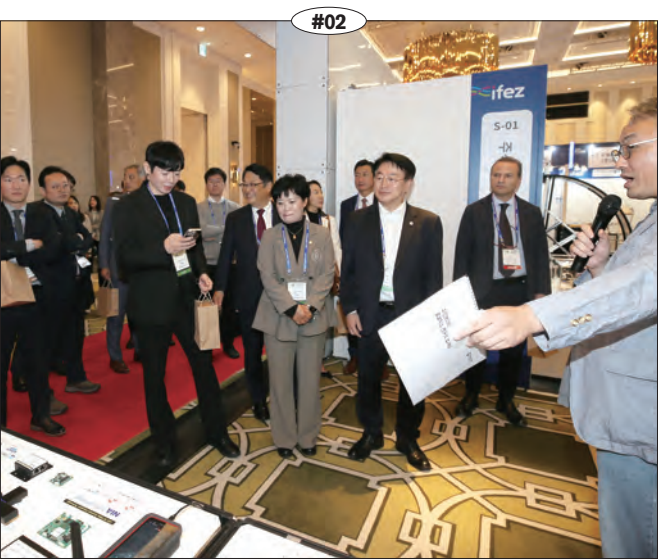


한-중 미래첨단산업 포럼, 4대 분야 ‘협력의 물꼬’

IFEZ(청장 윤원석)는 1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주한 중국대사관이 주최하고 정책평가연구원, 중국의 판골 연구소(Pangoal Institution), 인천테크노파크, 타이메이티(媒體·TMT POST)가 공동 주관하는 ‘한-중 미래첨단산업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웃 국가이며, 인천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다양한 교류 협력을 일궈왔다. IFEZ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중국의 새로운 투자 수요를 발굴하고,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추진 중인 강화남단에 이

를 주축으로 한 ‘글로벌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번 포럼은 양국의 ▲바이오&헬스케어 ▲모빌리티&자동차 ▲녹색에너지 ▲스마트 물류 등 네 가지 분야 대표 기업들이 참가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 한-중 간 무역과 투자 수요 발굴, 후속 사업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와 네트워킹이 이뤄지도록 꾸며졌다. IFEZ 윤원석 청장은 “이번 포럼이 4대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중 간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IFEZ는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글로벌 미래 도시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IFEZ의 활동을 소개한다.



IFEZ 항공·스마트제조 혁신 기업, K-UAM Confex 출격

IFEZ(청장 윤원석)는 10월 31일부터 이틀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리는 ‘2024 K-UAM Confex’에 참가해 ‘IFEZ 항공·스마트제조 공급사들 특별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UAM : 드론이나 개인 비행체를 이용해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도심항공교통체계’).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회차를 맞은 K-UAM Confex은 세계 UAM 기업기관의 전시와 업계 최고 전문가들의 콘퍼런스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IFEZ는 항공·스마트 제조 산업의 수요-공급 기업 간 공급사들 구축을 위해 에이치쓰리알, 로비고스, 엘피스, 다윈프릭션, 파인브이티, 아이피티, 태영광학, 용비에이티, 브이스페이스, 팔네트웍스까지 1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IFEZ 항공·스마트제조 공급사들 특별관을 꾸렸다. 한편, 이번 행사를 통해 항공·스마트제조 분야 기업들이 수요와 공급을 서로 논의하고 각종 정보를 나누는 기업들 간 공급 사슬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의 장이 됐다.

IFEZ,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혁파 나서

IFEZ가 입주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사업 확장 기반 조성을 돕기 위한 규제 혁파에 나섰다. IFEZ(청장 윤원석)는 5일 송도국제도시 지타워에서 열린 ‘제31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FEZ(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정부가 허용하는 인력 제도로, 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상 ‘300인 이상 제조사업장(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상),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은 외국인 고용이 금지되어 있어서, 입주 기업들은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에 IFEZ는 경자유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비전문 취업 비자(E-9)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선안을 요구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화 시간을 통해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의 애로 사항 및 협조 사항을 청취하고, 이번제 제출한 안건에 대해 개선 방안을 모색,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능성게임 연구 허브 탄생, 한국기능성게임연구소(KGSI)

인천글로벌캠퍼스(IGC)의 산학협력 생태계가 강화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윤원석)은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George Mason University Korea)의 한국기능성게임연구소(Korea Serious Game Institute, 이하 KGSI)는 본격적으로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돌입했다. KGSI는 인천글로벌캠퍼스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3층에 자리잡고 있으며, 의료 시뮬레이션, VR/AR 기반 진단 및 훈련 솔루션 등에 게임을 접목한 혁신적 연구방식인 기능성게임(Serious Game)을 통한 연구와 개발로 게임 산업의 혁신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연구소 개소로 글로벌 협력과 기술 교류를 통해 기능성게임의 활용 범위를 더욱 확대함은 물론 인천시의 게임 산업 발전에도 혁신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KGSI는 다양한 분야에서 게임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가 2014년 설립한 버지니아기능성게임연구소(VSGI)와 글로벌 협력으로 본격적인 국제공동연구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IFEZ, K-바이오랩허브 송도 네트워킹 데이 개최

IFEZ(청장 윤원석)는 지난 11월 28일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에서 'K-바이오랩허브 송도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IFEZ와 행사를 공동개최한 K-바이오랩허브 사업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송도국제도시에 건립 예정인 K-바이오랩허브의 운영을 위해 올해 초 출범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내 조직이다. 행사에서는 K-바이오랩허브 사업소개와 2025년 추진 예정인 시범사업에 대한 소개를 비롯하여 송도 입주기업·스타트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전략 발표, 국내 벤처캐피탈의 바이오 생태계 투자 방향 소개, 참석자 네트워킹 등이 이루어졌다. 한편 K-바이오랩허브는 글로벌 의약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관련분야 창업기업의 사무공간, 시험장비시설, 지원 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특화지원 시설이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1년 7월, 'K-바이오랩허브 구축 후보지 공모'에서 인천을 선정했다)

IFEZ, 제5회 IFEZ 외국인 김장 체험·나눔 행사 개최

IFEZ(청장 윤원석)는 지난 4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 IFEZ 글로벌센터에서 '제5회 IFEZ 외국인 김장 체험·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김장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여 명의 외국인들이 정성껏 담은 김치는 연수구 노인복지관을 통해 무료 급식을 받는 독거노인 120가구에 전달됐다. 한편 김장 행사를 통해 외국인들은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하는 데 동참하게 됐다. 행사에 참석한 윤원석 청장은 "IFEZ는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알리고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5회 IFEZ 외국인 김장 체험·나눔 행사'를 통해 추운 겨울,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어르신들에게 작은 위로의 손길이 되었길 기대해본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산업부 자문회의 추진
— 2025년 지정 목표

IFEZ(청장 윤원석)는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국가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첫발을 내디뎠다. 또한 강화남단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국제도시 개발계획(안)'에 대한 자문 요청을 지난 1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시와 경제청은 개발계획(안)에 대해 오는 1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 산자부 자문회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제51조에 따라 추진되며,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국제도시 개발계획(안)」에 대한 산업부의 자문을 받는 단계이다.) 한편 이번 자문회의는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한 첫 공식 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자문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보완한 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정식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송도 6·8공구 랜드마크로 개통식 개최

3단계에 걸쳐 추진된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공사가 10년(2014~2024년) 만에 완공되며, 송도국제도시 발전의 탄탄대로를 열었다. IFEZ(청장 윤원석)는 19일 오후 연수구 송도동 401번지 일원에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윤원석 IFEZ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랜드마크로 개통식을 개최했다. 아암물류단지(9공구)와 국제업무단지(3공구)를 연결하는 랜드마크로는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공사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로 지난 2020년 7월 착공해 4년 3개월 만인 2024년 10월 완공됐다. 또한 앞서 2017년 5월에 1단계 도로(길이 6.8km), 2021년 9월에 2단계 도로(길이 5.7km)가 완료된 데 이어, 이번 3단계 사업에서는 광2-14호선 외 15개 도로(길이 6.7km)와 교량 1개(차도 1교, 송도동 396-54번지), 상수도·우수·오수, 조경 등 다양한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됐다. 이는 개발 면적 약 5.8㎢, 3만여 세대의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교통 수요와 랜드마크시티의 주요 개발 사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핵심 시설물이다.

IFEZ, 백신·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정 실습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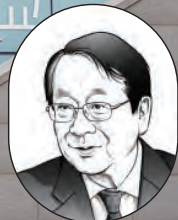
IFEZ(청장 윤원석)와 보건복지부는 '백신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정 실습교육'을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송도 연세대 K-NIBRT사업단 등에서 실시한다. 이번 실습교육은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인 한국과 세계보건기구(WHO)가 협력하여 중 저소득국 백신 생산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한 과정으로, 보건복지부와 WHO 간 교육생 선발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전세계 27개국 59명의 전문 인력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27개국 교육생들은 백신 바이오 의약품 공 사기업체, 관련 연구소 재직자 등 바이오 전문 인력으로 구성됐다. 이에 앞으로 4주간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바이러스백터 백신 등 세계적 수요가 높은 백신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준수하면서 제조하는 공정을 배울 예정이다. 한편 인천은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IFEZ 내 <글로벌캠퍼스>를 만나다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의 도약 한국뉴욕주립대학교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

대한민국 최초로 개교한 미국 대학교인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학생들은
Stony Brook University(SBU)의
컴퓨터과학, 기계공학, 응용수학통계학을
포함한 6개의 전공과정과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FIT)의
패션디자인학 및 패션경영학의 2개의
전공 과정에서 학습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국제적,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지평을
넓혀주고 있는 신용석 IFEZ 국제협력특보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아씨리(Arthur H. Lee)
총장이 만나 대화를 나눴다.



글. 신용석
IFEZ 국제협력특별보좌역



Q — 한국뉴욕주립대학교는 2012년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최초로 개교한 외국대학입니다. 개교 12주년을 축하드리며 한국에 최초로 개교하게 된 동기를 알고 싶습니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는 2012년 한국에 최초로 개교한 미국 대학교이자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최초로 유치된 외국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프로젝트는 한국 정부와 인천광역시가 유학 수지 개선과 국제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도한 사업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부상하기 위한 교육 및 연구 인프라로 설계되었습니다. 해외 우수 대학을 유치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 중심의 국제 교육 허브로 성장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의 설립 배경에는 한국 ICT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오명 전 부총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명 박사는 모교인 스토니브룩대학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잠재력을 이해하고 유치결정을 내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는 인천글로벌캠퍼스 프로젝트가 가시화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Q — 현재 한국뉴욕주립대에는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요.

미국 뉴욕주립대 시스템에는 총 64개 대학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미국 동부 최고 수준의 연구

중심대학인 스토니브룩대학교(SBU)와 세계 1위 패션 명문 대학인 패션기술대학교(FIT)가 인천 송도에 개교해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시스템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Q — 구체적으로 어떤 학과들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스토니브룩대학교는 컴퓨터과학과, 응용수학통계학과, 기계공학과, 전자정보공학과, 기술경영학과, 경영학과 등 6개 학과를 운영 중입니다. 빅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는 '컴퓨터과학과'와 '응용수학통계학과', 초전도체·반도체·자율주행차·로봇틱스 등과 관련된 '기계공학과'와 '전자정보공학과', 아울러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기술경영학과'와 '경영학과'까지 총 6개의 학과의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이 조화롭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패션기술대학교에는 패션디자인학과와 패션경영학과 등 2개의 학과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 캠퍼스에서 준학사과정(12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미국 뉴욕 또는 이탈리아 밀라노·피렌체 캠퍼스에서 학사과정(3·4학년 과정)을 수료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교직원과 학생 수는 몇 명인가요. 학생들의 출신국가와 비율은 어떤지요.

2024학년도 가을학기 기준, 167명의 교수 및 직원이 1,449명의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2년 간 한국뉴욕주립대학교를 거쳐 간 학생들의 누적 출신 국가 수는 69개국이며 2024학년도 가을학기 기준 재학생들의 출신 국가 수는 44개국입니다. 스토니브룩대학교의 외국 학생 수는 126명(10.6%), 패션기술대학교의 외국 학생 수는 39명(15.2%)으로 우리 대학 전체 비율 중 11.4%를 차지합니다. 이는 인천글로벌캠퍼스 전체 외국인 학생 중 약 44%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Q — 입학 절차와 선발 기준이 궁금합니다.

스토니브룩대학교는 봄 학기와 가을 학기, 1년에 2번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패션기술대학교는 가을에만 전형을 시행합니다. 필수서류로는 영문 고교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공인영어성적 등이 있으며, 입학사정관제에 기반하여 미국캠퍼스에서 학생선발을 결정합니다. 일반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중심 종합 심사로 진행되는 수능우수자전형, 공인영어성적 미충족 시 진행되는 조건부전형 등 다양한 입학전형을 제공합니다.



Q — 졸업 후 취업 상황은 어떻습니까.

졸업생들의 진로는 학교 특성에 따라 취업과 진학으로 나뉩니다. 2023학년도 봄 학기 기준 스토니브룩대학교는 약 84%의 취업률을 보였고 이 중 50% 이상의 졸업생이 미국 등 해외에서 취업하였습니다. 스토니브룩대학교 학생은 학부과정 4년 중 3년을 한국 캠퍼스에서, 1년을 미국 캠퍼스에서 수학하는데 미국 캠퍼스에서 4학년을 수학한 학생의 경우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졸업생들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Facebook), 아마존, 모건스탠리, 딜로이트 등 굴지의 미국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하버드, 스탠포드, 코넬, 콜롬비아, 밴더빌트 등의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세계적인 연구소인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에 입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패션기술대학교의 경우 2023학년도 봄 학기 기준 88%의 취업률을 보였고, 이 중 약 81%의 졸업생은 미국 또는 이탈리아 캠퍼스에서 학사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 취업을 하는 학생들은 디올, 루이비통 등과 같은 명품 브랜드 등 국내외 패션업계로 성공적인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Q — 한국 중앙정부의 교육부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IFEZ에 요망 사항이 있으신지요.

먼저, 한국뉴욕주립대학교는 외국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그간 지역 시민, 기관 및 기업들로부터 외국교육기관의 특화된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제공해줄 것에 대한 요청을 받아왔습니다. 성인 역량 향상을 위한 비학위과정 및 맞춤형 학위과정 개발 및 제공, 기업 수요 맞춤형 재교육 및 향상교육 과정 개발, 지역주민 대상 평생교육 확대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이라는 3대 발전 방향에 기반한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외국 고등교육기관도 대학에 특화된 평생교육과정을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IFEZ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다양한 기업들과 대학들이 산학협력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중간 교량 역할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대학과 기업 간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많은 외국인 인재들이 대학에서 배출되어 인천 지역사회에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외국인 지원



한국뉴욕
주립대학교
홈페이지
바라가기

프로그램 등도 다양하게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현행 비자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취업 제한 등의 비자 문제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제도적으로 완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외국인 인재들의 국내 정착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치 대학의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충분한 학생 기숙사 확보와 같은 캠퍼스 정주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 학생 기숙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이는 외국인 학생 유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요망 사항들이 반영되어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Q — AI관련 기술 및 연구가 국내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뉴욕주립대학교는 이 분야와 관련되어 현황이 어떠하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토니브룩대학교는 올해 9월 지난 2018년에 설립한 단과대 수준의 AI 연구소(Institute for AI-driven Discovery and Innovation)를 확장한 새로운 AI 연구소(AI Innovation Institute)를 개원하였고 뉴욕주가 글로벌 AI 연구 및 개발의 리더로 자리 잡기 위한 혁신 사업으로 4억 달러 규모의 미국 최초 공공-민간 파트너십인 엠파이어 AI 연구 컨소시엄(Empire AI Consortium)에도 총 7개 창립연구기관 중 하나로 참여하여 해당 분야 관련 연구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AI 연구에 대한 스토니브룩대학교의 이러한 행보에 발맞춰, 한국뉴욕주립대학교도 스토니브룩대학교 한국캠퍼스에 AI 연구소를 설립하고 각종 연구교류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Q — 현재 한국뉴욕주립대학교를 이끌고 계신 총장님의 교육철학과 향후 비전(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뉴욕주립대학교는 혁신적인 외국 고등교육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재창학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공동번영이라는 가치 아래 학생성공, 교육의 질 향상, 연구 활성화, 글로벌 교육인프라 구축이라는 4대 핵심전략을 수립하였고 대학 내실화 및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각종 학사지원체계의 고도화를 꾀하는 가운데 글로벌한 캠퍼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학부생들에게 다양한 연구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교육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낮은 교수대 학생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스토니브룩대학교와 패션기술대학교 각각 1:9, 1:6). 최근 학업환경 증진을 위한 다년도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서관 리모델링, 캠퍼스 전반에 걸친 학업·연구·업무·휴게공간의 재배치 및 리브랜딩, 각종 기자재 교체·확충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2012년 설립부터 유능한 개발도상국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육을 지원해주는 공동번영장학금 사업을 지속·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 계획의 일환입니다. 누적 69개국 출신의 학생이 한국뉴욕주립대학교를 거쳐 갔으며 향후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외국인 학생 수와 출신 국가 수를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은 우리 대학이 안정성을 넘어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전 교직원들이 신뢰와 책임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고, 융합 교육(STEAM)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이라는 강점을 살려 지금보다 더 많은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GLOBAL BUSINESS TREND

2025년 해외 시장 진출 모범 사례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 개발 접근법은 무엇일까요?

글로벌 사업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글로벌 사업은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한국 브랜드가 해외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을 꼭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글. Don Southerton
(CEO of Bridging
Culture Worldwide)



현지 사업
파트너 선정

해외로 진출하면 새로운 시장, 고객, 인력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며, 기업 평판이 개선되는 등 수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Wharton Magazine에서 언급했듯이 “시장 확장을 통해 다각화와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다양한 사업 수행 방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사실상 한국, 싱가포르, 필리핀 또는 베트남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글로벌 기업은 신규 시장 진출에 필요한 선행 투자 가능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모범 사례에 따르면, 기업은 “(시장) 발굴”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현지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만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나 대행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미국, 영국, EU와 같은 서구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지 기업가들 역시 인기 있는 브랜드를 자국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여 글로벌 브랜드에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가들은 현재 해당 브랜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수단을 갖추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단 MOU를 체결한 후 현지 사업 파트너

에게 거래를 제안하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간 노련한 글로벌 기업조차도 선의를 가진 파트너가 자격 미달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를 보았으며, 거래는 이내 중단되거나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현지 사업 파트너 선정은 현지 시장에 대한 심층적인 통찰과 주요 관계자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근의 프로젝트 기반 사업을 벤치마크로 삼았을 때,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지원 업무, 예상되는 해외 출장, 선불 법률 수수료 등의 항목을 비롯하여 최소 미화 2만~5만 달러이고, 물론 계약 체결 후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개발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합작 투자 및 라이선싱(licensing)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가장 좋은 방법은 1) 우수한 잠재 파트너를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2) 의사 결정권자와의 고위급 미팅을 성사시킬 수 있으며 3) 대상 기업이 해당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본, 자원 및 경험을 갖춘 시장 진출 대행사와 협업하는 것입니다.

자력으로
해외 시장 진출

이와는 대조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 중에는 내부 인력만을 활용하여 자력으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로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성공률은 저조하며, 심지어 현지 시장 진출에 굉장히 헌신적인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일부 기업은 적은 투자로 탄탄하고 헌신적인 해외 파트너나 고객을 찾는데 주력하고자 하며,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현지 전문가를 고용하기 위해 선불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모든 보상은 잠재적인 파트너를 먼저 발굴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거의(다시 말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과를 올린 실적이 있는 유능한 시장 진출 대행사는 고객의 선행 투자 개발 비용을 조달하는 데 드는 리스크를 거의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경험이 풍부한 대행사는 성공을 기대하며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기꺼이 제공하려는 사업체와 제휴할 것입니다.

또한 자력으로 해외 진출을 진행하는 기업은

자체 웹사이트, 제품 및 회사 정보(대부분 편집이 필요)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세하고 요령 있는 현지화 시장 진출 계획(Go-to-Market Plan, 대개 10페이지 이상의 방대한 분량의 계획)과 경쟁 시장에 대한 분석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치는 그저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인지도가 높은 미국 또는 글로벌 브랜드의 경우, 최고의 브랜드에 대한 국제적 수요로 인해 미팅을 성사시키는 것이 수월하지만,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동아시아 외에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의 경우, 해당 브랜드 자체보다는 제가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잠재적 파트너와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저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한국 브랜드가 좋은 기회를 잡아 해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을 꼭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를 위해서는 시간과 자원에 대한 선행 투자와 현지 전문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 역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모범 사례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인천 스타트업, 기술력과 혁신으로
세계무대에서 인정받다

인천 스타트업, ‘CES 2025 혁신상’ 13개 수상 쾌거!

- CES 2025 앞두고 주관사인
CTA(미국소비자기술협회)에서 선정·발표

IFEZ(청장 윤원석)는 인천지역 스타트업 12개사가 CES 2025 혁신상 13개를 수상하며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를 주관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매년 CES 개막에 앞서 출품된 제품 가운데 혁신성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CES 혁신상을 수여한다.

특히 이번 CES 혁신상에서는 인천의 스타트업 12개사가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 스마트시티 등 총 8개 부문에서 혁신상에 이름을 올려 화제가 됐다.

혁신상 수상 기업 리스트

- 이엠티(주)
모바일 관제 서비스 비디엠플
- (주)버시스
인공지능기반 사용자 인터랙션 음악감상 솔루션
- (주)지브레인
임플란트형 무선 전자약 의료기기
- (주)누비랩
유아동 영양분석 AI 솔루션
- (주)큐링이노스
AI 테니스 파트너 로봇
- (주)비바이노베이션
실시간 인공지능 내시경 용종 검출 및 암 예측 모델
- (주)일만백만
NO 카메라 영상제작 AI
- (주)일리아스AI
후각 AI기반 소지품 및 수확물 내 반입금지 물품 탐지 솔루션
- (주)더넥스트에이아이
관광, 물류 스마트 디지털트윈 자동화 서비스 SaaS제공
- (주)테슬로
로봇 핸드 그리퍼
- (주)아이핀랩스
딥러닝 기반 실내외 측위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위치 모니터링 솔루션



이번 수상 기업들은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진출 및 실증 지원 사업, CES 혁신상 컨설팅 등의 도움을 받아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수상제품은 CES 2025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IFEZ는 내년 1월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5에서 ‘도시 르네상스, 미래 도시를 구현하다(Urban Renaissance: Building Tomorrow’s Smart Cities Today)’라는 컨셉으로 혁신기업이 열어나가는 도시의 미래비전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 IFEZ를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IFEZ관(10개사), 유레카파크(10개사) 전시 지원 및 인천 스타트업 참관단(15개사)까지 총 35개 스타트업을 선정해 CES에 함께 참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IFEZ는 지난 11월 27일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CES 2025 인천-IFEZ관 전시기업 및 참관단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가 준비에 나섰다. CES를 포함한 전시 및 홍보 분야에서 수년간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전하는 현지 맞춤형 홍보 전략과 지식재산 교육을 포함한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교육 등이 이뤄졌다.



IFEZ 윤원석 청장

지난 CES 2024에 이어 2년 연속 10개 이상의 인천 스타트업들이 혁신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쟁력을 입증했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

탄탄한 산업생태계 구축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IFEZ

INNOVATIVE — GROWING CITY

IFEZ는 송도와 영종, 청라국제도시 각 지구가 보유한 특징과 장점에 기반하여 차별화된 개발 전략을 추진하며 탄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송도는 첨단 지식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영종은 세계적 국제공항을 갖춘 항공·물류, 관광·레저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청라는 업무와 주거, 산업이 공존하는 신개념 비즈니스 타운으로 자리매김했다. 세계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건인하는 송도, 글로벌 관광·레저 도시로 도약한 영종, 첨단 금융 및 미래 로봇산업의 거점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청라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송도

SONGDO

기업하기 좋은 환경,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가능성, IT, BT 등 첨단 지식 서비스 산업과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거점, 마이스(MICE) 산업을 이끌 국제 비즈니스 도시, 내일의 꿈이 자라는 국제교육의 요람, 더 나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첨단 의료 시스템, 국제 도시로 성장한 송도는 한발 앞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다양성을 포용하며, 스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22만 톤 급 크루즈 전용 부두와 5만 톤 급 카페리 운항, 황금빛 항만 등 바닷길 물류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단지

국제 수준의 맞춤 의학과 재생의학 분야 특화로 의료관광,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품 생산 및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업무단지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업무용 빌딩, 송도컨벤시아, 아트센터인천, 고급 호텔 등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 환경과 정주여건을 갖추고 UN·국제기구까지 함께한 고품격 국제도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식정보산업단지

산업·연구·교육·주거·상업 기능이 복합된 첨단산업단지로 업무시설, R&D, 제조업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뉴욕주립대 패션기술대가 입주해 글로벌 교육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클러스터

IT·BT·NT 기술 융합을 목표로 국내외 주요 기업과 R&D 중심의 첨단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천신항물류단지

인천항 전체 이동 물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신항은 최대 12,000TEU 접안 능력을 갖춘 복합물류단지입니다.

개발 콘셉트

국제 비즈니스 IT·BT·R&D 등
첨단 지식 서비스 산업

면적

53.36km²

사업기간

2003 - 2030년

기반시설 조성비

21조 5,442억 원

계획 인구

26만 5천여 명

인구 현황 2024년 9월 말 기준

21만 4백여 명

영종

YEONGJONG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도시 영종은 항공물류와 복합리조트 개발, 관광·레저산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최초의 아트테인먼트 리조트인 파라다이스 시티와 동북아 최대 규모인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등 독창적인 리조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종은 특급호텔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아레나 시설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 집적화를 경쟁력으로 글로벌 관광·레저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인스파이어IR

동북아 최대 규모인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국내 최초의 아레나 시설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레저 매력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용유

우수한 입지와 자연 환경을 활용해 국제적인 관광·레저형 해양 관광단지로 조성됩니다.

무의썰레어

천혜의 자원을 경쟁력으로 호텔, 콘도, 컨벤션 등을 갖춘 휴양형 해양 복합리조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항물류단지

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는 연간 화물 630만 톤을 수용할 수 있는 메가 허브 물류단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미단시티

영종지구 북동쪽 예단포 일원에 위치한 미단시티(Midan City)는 국제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종하늘도시

동북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 배후에 주거·산업·업무·관광기능의 복합도시 개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파라다이스시티

동북아 최초의 복합리조트로 호텔과 컨벤션, 카지노 등 다채로운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세계 공항 서비스평가(ASQ) 12년 연속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세계적 공항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개발 콘셉트	면적	사업기간	기반시설 조성비	계획 인구	인구 현황 2024년 9월 말 기준
항공·물류와 복합리조트 등 관광·레저 산업	51.18km ²	2003 - 2027년	13조 3,190억 원	17만 9천여 명	12만 2천여 명

청라

CHEONGNA

업무와 주거가 공존하는 신개념 비즈니스 타운 청라는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유통산업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청라의 랜드마크가 될 시티타워, 제3연륙교와 함께 첨단 금융, 로봇산업, 대형 쇼핑몰이 자리한 청라는 미래형 국제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타필드청라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 문화, 테마파크, 호텔 등을 갖춘 복합쇼핑몰로 조성됩니다.

달튼외국인학교

개개인의 학습 능력과 관심, 적성을 중시하며 영어권 국가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이 가능합니다.

국제업무(금융단지)

비즈니스와 주거가 공존하는 신개념 비즈니스 타운으로 편리하고 풍요로운 미래 도시로 조성됩니다.

인천로봇랜드

로봇산업 인프라 구축 및 복합 테마파크를 통해 로봇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타운

통합데이터센터, 글로벌 인재개발원, 글로벌 헤드쿼터에 이르기까지 하나금융타운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청라시티타워

청라호수공원 일대에 조성되는 청라시티타워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인천 하이테크파크(IHP)

첨단 자동차부품 및 R&D 중심의 기업 유치와 연구소 등과 연계, 첨단산업단지로 육성됩니다.

개발 콘셉트	면적	사업기간	기반시설 조성비	계획 인구	인구 현황 2024년 9월 말 기준
국제업무(금융)·R&D·유통·첨단산업	17.80km ²	2003 - 2024년	6조 5,895억 원	9만 8천여 명	11만 4천여 명

혁신을 품고, 세상을 바꾸는 인천 스타트업파크 소식을 만나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마구 샘솟는 곳, 인천 스타트업파크가 IFEZ 내 입주해 있다.
스타트업파크 정보부터 주요 이슈까지 지금 만나보자.



NEWS

스타트업 파크 주요 이슈

IFEZ, 송도국제업무단지에 바이오 오픈랩 조성 “일자리 창출 1호 사업 시동”



IFEZ(청장 윤원석)는 27일 인천시청에서 ‘스파크플렉스(SPARK-PLEX)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을 개최했다. 스파크플렉스 개발사업은 송도국제업무단지 F3-3블록(송도동 37-2번지)에 35층 규모의 건물 2동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약 5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스파크플렉스는 바이오 의약 분야 기업들이 협업과 공유를 통해 성장하고 상생하는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공간으로 방향을 수립했다. 이에 최신 연구장비가 구비된 공유 실험실, 정밀의료센터 등을 입주기업에게 제공하는 ‘메디오픈랩 플랫폼’을 운영하여 바이오 스타트업은 물론 대중견기업, 기업과 기관 간 협업과 혁신 성장을 적극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입주하는 바이오 스타트업을 위해 각종 최신 장비 지원뿐만 아니라 입주기업 간 교류 확대를 위한 공유 사무실, 강당, 스튜디오 등도 구축한다. 또한 장거리 출퇴근이 곤란한 입주기업 종사자들을 위해 청년주거시설도 갖춘다.

(주)스파크랩은 지난해 바이오 분야 특화 회사인 ‘스파크바이오랩’을 출범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바이오헬스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특화된 공유 실험실 플랫폼 ‘메디오픈랩’을 개소하는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스파크플렉스가 완성되면 송도는 글로벌 바이오 혁신 허브로 발돋움하게 된다. 국내 바이오 대기업과 주요 글로벌 바이오소부장 한국법

인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포진해있으며, 오는 2028년 K-바이오랩허브가 운영에 들어가면 차별화된 연구개발 및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송도국제업무단지 F3블록 개발 사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주)스파크랩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세부 사항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오는 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송도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한 신약을 위탁생산하는 CMO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이제는 성장과 혁신을 동시에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스파크플렉스가 혁신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원석 IFEZ청장은 “스파크플렉스 조성을 ‘인천경제청의 국제업무단지 내 일자리 창출 1호 사업’으로 정해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오픈 이노베이션이 제약·바이오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스파크플렉스가 완성되면 세계 각국의 기업과 스타트업, 산학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공존하며 성장하는 혁신적인 글로벌 바이오 콤플렉스가 조성된다”고 밝혔다.

장소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04
시설안내 사무실, 회의실, 인스타Ⅰ(실증센터, 피칭연습실, 홍보관 등), 인스타Ⅱ(그룹코칭실, 오픈스테이션 등), 인스타Ⅲ(오픈준비중)

인천 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 바로가기



IFEZ 커뮤니티 소식 한 눈에 보기

IFEZ 내에는 UN 국제협력기구부터
인천글로벌캠퍼스(IGC),
IFEZ 글로벌센터까지 다양한 커뮤니티가
공존한다. IFEZ를 이루는
커뮤니티들의 소식을 지금 만나보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에 온기를 담아 전달!

ISSUE 1

이웃에 따뜻한 온기를 전달해요!
IFEZ,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진행

IFEZ(청장 윤원석)은 지난 11월 1일 미추홀
구 학익동 일대 저소득 가구에 연탄을 직접 배
달하는 '2024년 IFEZ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봉사에는 윤원석 청장을 비롯한 인천
경제청 직원들, 굿네이버스 인천지역 후원회·인
천사업본부, 경신, 경신전선, 경신흥딩스, 롯데바
이오로직스, 머크,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이센스,
에스티젠바이오, HL클레무브, 캄시스, 티오케이
첨단재료 등 입주기업기관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
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연탄에 온기를 담아 15가구
에 총 3,0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윤원석 청장
은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해준 봉사자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소
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나눔과 봉사 활동을 지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5가구에 3,000장의 연탄 전달 완료!

ISSUE 2

생활에 꼭 필요한 비자정보 바로 알아가요!
IFEZ, 외국인 대상 <비자 바로 알기>
공개강좌 열려

IFEZ(청장 윤원석)는 지난 11월 7일 IFEZ
글로벌센터에서 'IFEZ 외국인과 함께하는 공개
강좌'를 개최했다. 공개강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외국인들의 생활 만족
도를 높이고,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공개강좌에서는 외국인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비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
공했다. 인천지방행정사회의 전문 강사가 외국
인들이 소지한 유학 비자 및 동반 가족 비자의
근무 조건 등을 실 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해
청중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이날 강좌는 질의응답 뿐만 아니라 외
국인들이 함께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장도 마련했
다는 점에서도 외국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김
종환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IFEZ 외국인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앞
으로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실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
<비자 바로 알기> 강좌!



비자에 대해
함께 배워볼 시간!

ISSUE 3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워가는 시간
IFEZ 한국어교실 수강생,
한국민속촌 견학

IFEZ(청장 윤원석) 지난 15일 IFEZ 한국어교
실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국민속촌 견학을 추진했
다고 밝혔다. 50명의 외국인과 함께 한국민속촌
을 찾아, 전문가이드의 영어 해설을 들으며 한국
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IFEZ 한국어교실은 IFEZ의 글로벌 센터에
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정주지원 프로그램으로
거주 외국인들에게 초·중·고급 단계별 한국어 교
육을 지원한다. 이번에 진행된 견학은 한국어교
실 수강생들에게 언어 뿐 만 아니라 다양한 한
국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기수
별 진행하는 필드 트립 이다.

이번 기수는 올해 마지막 기수인 3기로 지난
9월 9일에 개강하여 12월 11일까지 14주간 한국
어교실을 수강했다. 수강생인 신티아(Cynthia)씨
는 "한국어교실에서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울
수 있어서 한국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소감
을 전했다.

한국어교실 수강생!
한국 민속촌으로
떠나다!



겨울에도 즐기기 좋은 도시 IFEZ : IFEZ 겨울 낭만 여행

부쩍 추워진 겨울, IFEZ에서는 겨울 추위와
함께 즐기기 좋은 여행지들이 가득하다.
따뜻한 커피와 함께하는 솔찬공원의 일몰부터
매서운 겨울 바다를 바라보며 즐기는 라면까지.
겨울 낭만여행, IFEZ로 지금 바로 떠나보자!

#솔찬공원

#송도일몰맛집

#베이커리카페



YouTube

IFEZ 유튜브에서
솔찬공원과 케이슨24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찬공원

송도 솔찬공원 & 케이슨24



케이슨24

겨울이면, 송도 일몰 핫플로 떠오르는 공원이 있다
바로 원래 인천대교 건설 시 작업장으로 사용되던
곳이었으나,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원으로 만들어
재탄생한 솔찬공원. 드라이브 코스로도, 산책 코스로도,
출사 코스로도 좋은 솔찬공원은 바다 건너편으로는
인천 신항과 한국가스공사 액화천연가스기지가 한 눈에
보이기도 한다. 특히 추위도 싹 잊을 만큼 아름다운
산책로는 해안을 따라 길게 뻗어있다. 드넓게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하기 좋고, 가볍게 걸으며 운동도
즐길 수 있도록 운동기구들 또한 마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봄, 가을에 나들이 즐기기 좋은 피크닉 장소와 맑은
날이면 보이는 대부도와 무의도, 영종도까지 서해바다를
한 눈에 즐길 수 있는 것도 큰 장점 중 하나다.

또한, 한가로이 앉아 서해바다 조망을 만끽할 수
있는 베이커리카페 케이슨24도 위치해 있으니, 송도의
핫플에서 아름다운 겨울 일몰을 감상해 보는 건 어떨까.

시설안내

솔찬공원

위치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391번 길 20

운영시간 매일 06:00 ~ 24:00

주요시설 인천대교 제작장, 습지생태원, 조류관찰전망대, 사진갤러리 등
문의 032-456-2860

케이슨24

위치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391번 길 20 케이슨24

운영시간 매일 09:00 ~ 22:00

메뉴 아메리카노 5,000원, 콜드브루라떼 7,000원 등

문의 032-832-0024





#청라해변공원캠핑장

#겨울캠핑

#청라캠핑명소

시설안내

위치 인천 서구 청단서로 190 청라해변공원캠핑장

운영시간 06:00 ~ 24:00

주요시설 오토캠핑, 카라반, 파쇄석, 데크, 바비큐장 등

문의 0507-1336-4968

청라
청라해변공원 캠핑장

낭만하면 떠오르는 겨울캠핑. 추운 날씨 속 불멍 아래 따스하게 녹이는 몸과 오들오들 떨어져 먹는 고기는 그야말로 일품이다. 멀리가지 않아도, IFEZ 내에서도 낭만 가득한 캠핑을 즐길 수 있다. 바로 도심 속에서 누리는 숲속 캠핑 청라해변공원 캠핑장이다. 청라해변공원 캠핑장은 도시공원형 캠핑장으로 외부인 금지로 관리가 된다. 이에 체크인 시 손목 팔찌 등 꼼꼼한 체크가 진행된다. 또한, 미처 챙겨오지 못한 음식, 식기 등을 준비할 수 있는 해변마켓 또한 운영되고 있어 가볍게 출발한 후 준비시간을 더욱 아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먼저 텐트 카라반 존은 트레일러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주말 숙박 시 이용하는 4인용 시설이다. 폴딩 트레일러부터 개별 바베큐 공간, 트램펄린도 있어 아이와 함께 캠핑을 즐기기에 딱 좋은 장소다. 이외에도 청라해변공원캠핑장에는 회사 워크샵 등 단체로 놀러갔을 때 즐기기 좋은 레이저 그라운드 배틀 체험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산책로, 즐길거리, 캠핑존까지 잘 갖춰져 있는 청라해변공원캠핑장으로 겨울 낭만, 즐기러 떠나보자.

영종

왕산마리나 & 라면도서관



라면도서관

#왕산마리나

#요트보트선착지

#라면도서관

시설안내

왕산마리나

위치 인천 중구 을왕동

주요시설 요트계류시설, 마리나

지원시설, 편의시설 등

문의 032-202-9960

라면도서관

위치 인천 중구 왕산마리나길

143 (을왕동) 1층 A-107,

A-108호 CU왕산마리나점

운영시간 09:00~21:00



YouTube

IFEZ 유튜브에서
왕산마리나와 라면도서관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구 을왕동에 위치한 왕산마리나는 요트 및 선박투어 등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리조트 시설이다. 중소형 마리나 선박 및 슈퍼 요트를 계류할 수 있고, 319척의 마리를 선박 계류할 수 있는 최신의 마리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마리나선박(요트/보트) 및 투어 등 해양레저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요즘 뜨고 있는 CU왕산마리나점. 그 이유는 탁 트인 바다를 한 눈에 조망하며, 다양한 라면을 내 취향에 따라 먹을 수 있는 라면도서관이 오픈했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규모로 도서관 느낌으로 준비된 라이브러리에서는 전 세계에서 출시된 140여 종의 라면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라면 종류와 함께, 라면에 넣을 토핑 또한 고르는 재미도 쏠쏠했던 라면도서관. 추운 겨울, 왕산 마리나의 넓은 바다 앞에서 먹는 라면 맛 즐기러 이번 주말 떠나보는 건 어떨까.

왕산마리나



아트센터인천의 겨울

What's on?

화려한 공연 라인업과 독보적인 음향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 공간,
아트센터 인천! 글로벌 문화 콘텐츠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부분부터,
2025년 새해에 마련된 공연소식까지 다뤘다. 특별하게 새해를 시작하고 싶다면,
아트센터 인천의 What's on에 집중해보자!

IFEZ-글렌데일시

엔터테인먼트 산업 및 경제 발전 위한 상호협약 체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윤원석)은 지난 21일 아트센터인천에서 글렌 데일시(시장 엘렌 아사트리안)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통하여 상호지역 간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와 정부(G-TO-G) 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엔터 테인먼트 및 관련 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양측이 글로벌 문화 콘텐츠의 자유로운 생산, 유통, 소비 도시로 동반 성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는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의 3번째 도시로 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유니버스픽처스의 자회사) 등 많은 콘텐츠 관 련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중심지이다.

IFEZ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지역의 ▲엔터테인먼트사 및 관련 산업계 의 활발한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협력 플랫폼 구축 등으로 향후 지속 적인 연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IFEZ는 세계적인 콘텐츠의 산실인 글렌데일시와의 협약을 기념해 금년 처음으로 ‘할리우드 아시아 엔터 포럼’을 개최했다. 윤원석 IFEZ 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할리우드 아시아 포럼을 정례화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할리우드 영화제 아시아판 행사를 송도에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산업 관계자들과의 충분 한 공감대 형성과 철저한 분석을 통해 ‘할리우드 아시아 테마파크’ 유치 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 미국 10대 콘텐츠 기업으로서, 스티븐 스필버그, 전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회장 제프리 카젠버그, 음반제작자 게펜이 '94년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부로 창업. 슈렉, 쿵푸팬더, 드래곤 길들이기, 트롤 등을 제작하였고 특히 트롤의 경우 코로나 강타 시 업계 최초, 극장 및 스트리밍 동시 개봉으로 3주 1억 달러 매출 달성하 는 등 전 세계 업계를 리드하고 있음.



아트센터 인천, 설레고 기다려지는
1~2월 공연을 만나보세요!

고전과 낭만사이 <베토벤 &
차이코프스키 & 라흐마니노프>



공연일정 2024년 12월 28일 (토) 17:00
장 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관람시간 약 150분
티켓가격 VIP 11만 원, R 9만 원,
S 6만 원, A 4만 원

제10회 The String Orchestra
자선콘서트



공연일정 2025년 1월 5일(일) 19:00
장 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관람시간 약 120분 예정
티켓가격 전석 1만 원

야쿠프 유제프 오를린스키 &
일 포모 도로 <비욘드>



공연일정 2025년 1월 11일(토) 17:00
장 소 아트센터인천
관람시간 80분(인터미션 없음)
티켓가격 R석 4만 원, S석 2만 원

2025 신년음악회 <빈 슈트라우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공연일정 2025년 1월 17일(금) 19:30
장 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관람시간 미정
티켓가격 R석 5만 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2025 신년음악회>



공연일정 2025년 1월 18일 (토) 17:00
장 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관람시간 약 120분 예정
티켓가격 전석 1만 원

낭만주의 거장
대니구 &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공연일정 2025년 2월 23일 (일) 17:00
장 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관람시간 약 120분 예정
티켓가격 VIP석 12만 원, R석 9만 원,
S석 6만 원, A석 4만 원

송도컨벤시아 ISSUE & CALENDER

MICE 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는 전시컨벤션센터다. 국제 회의부터, 인센티브 관광, 각종 전시박람회 등 복합적인 산업을 아우르는 송도의 랜드마크, 송도컨벤시아. 최대 450부스까지 수용 가능한 전시장은 물론 국제 회의장, 행사장이 마련되어 다양한 국내외 컨벤션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MICE 산업의 떠오르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MICE 산업의 떠오르는 메카, 송도컨벤시아의 이달의 이슈부터 행사일정까지 한 눈에 담았다.

MICE 산업?
마이스 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박람회전시회(Events & 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이달의 CONVENSIA!

송도컨벤시아, 3단계 확장 공식화... 인천연구원 증축 필요성 진단·제언

출처 : 인천일보
(<https://www.incheonilbo.com>)

인천 MICE 산업의 핵심인 송도컨벤시아의 확장 방안이 공식화됐다. 인천연구원은 18일 ‘송도컨벤시아 3단계 사업 필요성 진단 및 제언’을 발표했다. 인천연구원은 “송도컨벤시아는 올해 전시장 가동률이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완전 포화 상태”라며 “2030년까지 3단계 증축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타 지역 사례 등을 검토하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송도컨벤시아는 2008년 송도국제도시에 개관했고, 2018년 2단계 증축 사업을 마쳤다. 또한 2단계 사업은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됐다. 인천연구원은 “3단계 사업의 필요성은

정부·인천시·송도컨벤시아 측면을 중심으로 검토됐다”며 “3단계 증축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연구원은 “송도국제도시 주변을 시민과 내·외국인 관광객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글로벌 MICE 복합기능 단지형 목적지로 만들어야 한다”며 “관광과 여가문화를 복합화해 호텔 등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1·2·3단계 시설 간 지상·지하 연결통로(Direct Access) 설치 추진하고, 송도컨벤시아와 주변 호텔, 쇼핑몰, 음식점, 지하철역, 공원과의 직접 연결통로 설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2025. 01. 송도컨벤시아 행사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9	30	31	1 신정	2	3	4
• 송도상상체험 키즈월드 2024. 12. 29.~ 2025. 3. 3. 까지						• 2025 MIZUNO RUNFESTA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조용필& 위대한탄생 콘서트
26	27	28	29 설날	30	31	1




전시행사 더
자세히 알아보기

추억을 공유하는
일상한컷

IFEZ에서 보낸 독자분들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송도·영종·청라에서 보낸 독자분들의 하루, 지금 만나보세요.

영종

윤인영



♡

Q


▽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마주한 예술품

#아트포트 #인천공항 #영종

송도

성은미



♡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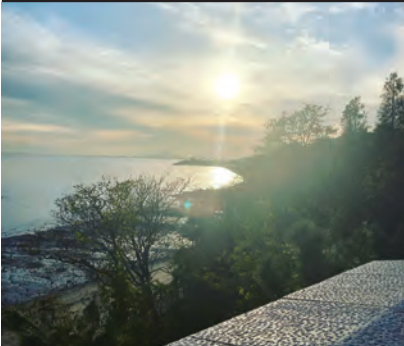
▽

근린공원의 아름다운
코스모스 꽃들의 향연

#코스모스 #송도공원 #송도

영종

박진주



♡

Q


▽

하늘도시 구읍베타터의
한가하고 평화로운 풍경~

#구읍베타터 #하늘도시 #영종

청라

한이안



♡

Q


▽

청라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난 미리메리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트리 #청라

송도

최하늘



♡

Q

▽

송도에도 눈이 소복히!
하얀 세상이 되어 얼마나 예쁘지요!

#눈 #겨울 #송도



IFEZ 일상이 담긴 사진을 짧은 글과 함께
응모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로
<IFEZ 저널>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 마감 2024년 1월 20일(월) 까지
- 보내주실 곳 ifez2021@naver.com
- 지난호 당첨자 윤인영 성은미 박진주 한이안 최하늘

※ 성함,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신 분에
한해 추첨을 진행합니다.
※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LANDMARK
QUIZ

IFEZ를 알아가는 랜드마크 퀴즈

IFEZ를 더 신나고 즐겁게 만끽할 수 있는 랜드마크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문제를 꼼꼼히 읽은 후 정답을 맞춰보세요.



□□□ □□□□은 중구 을왕동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늘목 또는 얼항으로도 불리며 1985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됐다. 해수욕장의 백사장 길이는 약 700m, 평균 수심은 1.5m로 비교적 규모가 큰 편이며 울창한 송림과 해수욕장 양쪽 옆으로 기암괴석이 늘어서 있어 경관이 매우 아름답다. 또한 걸어서 10여 분 거리에는 모래사장 규모가 을왕리 해수욕장의 2배가 넘는 왕산해수욕장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외 에도 거잠의 장군바위, 용유기암, 무인도를 구경하는 것도 색다른 구경거리다.

Quiz 1. 빈칸에 들어갈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① 대왕산 해수욕장 ② 신왕산 해수욕장 ③ 을왕리 해수욕장 ④ 을왕못 해수욕장

Quiz 2. 위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① 중구 을왕동에 위치해 있는 해수욕장이다.
② 늘목 또는 얼항으로도 불린다.
③ 평균 수심은 1.5m로 규모가 큰 편이다.
④ 을왕리 해수욕장 주위에는 특별한 관광지는 없다

마감 2025년 1월 20일(월) 까지 보내주실 곳 ifez2021@naver.com

지난호 당첨자 이도연 유형규 유현아 이상영 최은숙

※ 정답, 성함, 연락처를 보내주신 분에 한해 추첨을 진행합니다. ※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립니다.